



숲이 주는 선물

세상이 신록으로 물들었습니다.
 파란 하늘과 어우러져 반짝반짝 빛이 나네요.
 사람들은 더위를 피하려고 산을 찾습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싱그러운 나무 향기를 마실 수 있죠.
 거기에 상쾌한 기분까지 더해지니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힐링, 숲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www.forest.go.kr



Vol. 13
July
August
2016

주월산과
배롱나무

MAGAZINE

숲

紫薇花

발행일 2016년 8월 10일
발행 신림청
발행인 신원섭
기획 대변인실 magazinesup@korea.kr
기획/편집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m.com
사진 스튜디오 KENN

〈magazine 숲〉은 산림청에서 발간하는 산림 문화 전문 매거진입니다.
〈magazine 숲〉은 한국 간행물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배롱나무

파란 하늘
녹음 짙은 산천
그 속에 붉게 빛나는 배롱나무.
그래서인지 배롱나무가 더욱 빛이 나네요.

여름에만 만날 수 있어 특별하고
100일 동안 만날 수 있어 진귀한
배롱나무.

이번 호 매거진 숲은
여름의 붉은 빛깔만큼 아름다운
배롱나무를 찾아 떠납니다.

Vol. 13
July
August
2016

Contents

●
추월산과
배롱나무



4. 단상
배롱나무 꽃이 피었습니다
여름이 왔다고 전해주세요
- 배롱나무

6. 여행
나무처럼 유유자적 쉬어 가기
- 담양 명옥현 · 관방재림

12. 역사
당 현종이 사랑한 꽃들
- 당 현종과 배롱나무

16. 과학
수줍은 여인을 닮았네
- 배롱나무 생태

18. 인포그래픽
빨갛고 윤기 나는 나무
- 배롱나무 정보

20. 월드 트래블
아찔한 산맥이
굽이굽이 이어지는 곳
- 미국 그랜드티턴 국립공원



22. 가드닝
식물도 여름을
시원하게 나는 방법
- 수경재배

38. 숲에서 자라는 가치
새빨간 오미자처럼
시큼 달콤 쌉싸름한 인생
- 문경 오미자체험촌

26. 산 그리고 사람
빛을 담는 찰나의 순간영원을 담는 순간
- 사진작가 배병우

42. 캠핑
가장 창조적인 여행법
- 캠핑카

30. 약초도감
뙤약볕 아래 붉게 빛나리
- 침나리

46. 산촌일기
행복한 삶 건강한 삶
- 네 번째 이야기

32. 어떤 날 숲
엄마와 함께라면 너와 함께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지
- 보은 개암 전통미을숲

50. 아트테라피
여름에
만나요
- 배롱나무

36. 그린 테이블
임산물로 만드는 여름 보양식
- 구기자, 산마

52. 독자 메시지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 독자 응서

표지 일러스트
박지애



www.forest.go.kr

〈magazine 숲〉의 앱 매거진을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단상

배롱나무 꽃이 피었습니다

**여름이 왔다고
전해주세요**

여름이 와서 꽃이 피었습니다. 100일 동안 오래도록 꽃이 피어 있습니다. 한번 핀 꽃이 100일을 가는 건 아닙니다. 같은 줄기에서 꽃들이 연이어 피고 지고 하는 것이지요. 이름도 그런 연유에서 지어졌습니다. ‘백일 동안 꽃을 피우는 나무’라서 목백일홍(木百日紅)이라고 합니다. 꽃은 자미화(紫薇花)라 부릅니다. 백일홍의 소리가 변해 배롱으로 되었다는 설도 있지요.

배롱나무는 이름도 참 많습니다. 줄기에 손을 대면 간지럼을 타듯 줄기가 파르르 흔들려 간지럼나무라고도 부릅니다. 배고픈 시절, 배롱나무 꽃이 지는 무렵에 벼가 익는다 하여 쌀밥나무라고도 불렸다고 해요. 껍질이 매끈하여 원숭이도 배롱나무에서 미끄러진다고 해서 원숭이 미끄럼나무라고도 한다네요. 예쁜 꽃과 달리 참 재미있는 이름 아닌가요?

배롱나무를 심는 곳에 따라 그 의미도 가지각색입니다. 배롱나무 꽂 말은 ‘부귀’입니다. 우리 선조는 배롱나무가 부귀를 가져다준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독 고택에서 배롱나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지요. 사찰과 서원에서는 배롱나무를 청렴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배롱나무가 스스로 껍질을 벗는 데서 연유합니다. 배롱나무가 껍질을 벗어 버리듯, 스님과 선비도 세속을 벗어나는 뜻이지요.

사찰 내내 싱그러운 나무도 좋습니다. 가을 한철 붉게 물드는 나무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절의 나무가 생각나지 않을 만큼, 여름에는 유독 배롱나무만 떠오릅니다. 배롱나무의 붉은 빛깔이, 여름의 푸약볕을 닦아 그런 듯합니다. ☺

나무처럼

유유자적 쉬어 가기

담양 명옥헌 · 관방제림

나무가 있는 이 땅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결코 단조롭지 않고 지루할 틈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추월산이 품어 안은 담양은 나무가 많아 참으로 촉복받은 땅이다.

배롱나무 꽃 만개한 명옥헌에서 나무의 고고함을 느꼈고

아름드리 자란 나무 그늘에서 시원한 바람을 만끽했다.



1. 2.

3.

쉬어 가는 계절, 여름

일 년의 반 이상이 지났다. 잠시 멈추어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날을 뒤돌아본다. 후회한 일 잘한 일 미안한 일 고마운 일… 지금에서 후회해봐야 이미 늦은 일. 훌훌 털고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름은 우리에게 주어진 칠나의 휴식. 마음껏 쉬어야 마음껏 달릴 힘도 생겨난다.

그런데 웬걸, 불볕더위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고 연일 폭염주의보가 이어진다. 그러다 보니 찾게 되는 건 시원한 에어컨 바람 쏟아지는 공간. 하지만 ‘이열치열’이라고 했다. 열은 열로써 다스리는 법. 바다와 계곡 대신 나무 그늘의 여유로움을 만끽하러 담양으로 향했다. 호남의 젖줄 영산강이 유유자적 흐르고 추월 산과 무등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곳, 헛빛이 숨통을 꼈꽉 막히게 했지만 담양은 싱그러움 그 자체였다.

잠시 머무르기

가는 내내 배롱나무 꽃이 지천으로 피어 있었다. 주변에 이렇게나 많은 배롱나무가 있을 줄이야, 여름이 되니 깨닫는다. 제일 먼저 명옥현 원림을 찾았다. 담양 하면 ‘소쇄원’이 떠오르겠지만, 명옥현 역시 담양의 대표 명승지다.

명옥현 원림은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민간정원이다. 조선 중기 오희도(吳希道, 1583~1623)가 자연을 벗 삼아 이곳에서 지냈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아들 오이정(吳以井, 1619~1655)은 이곳을 새롭게 가꿨다. 정자인 ‘명옥현(鳴玉軒)’을 지었고 정자의 정원인 ‘명옥현 원림(苑林)’을 조성했다. 명옥현이란 이름은 원편으로 흐르는 자그마한 시냇물로부터 왔다. 이곳 시냇물은 크기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일 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는단다. 물은 쉴 새 없이 바위에 부딪히고, 그 소리가 마치 구슬 소리처럼 들려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1.
명옥현 원림은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민간정원이다. 연못 주변으로 배롱나무가 가득하다.

2.
창을 통해 주변 경관을 바라봐도 좋다. 마치 산수화를 보는 듯. 아름답다.

3.
명옥현. 명옥현이란 이름은 원편으로 흐르는 자그마한 시냇물로부터 왔다. 이곳 시냇물은 크기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일 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는다.

명옥현 원림은 30여 가구가 올망졸망 모여 사는 ‘후산마을’에 자리한다. 다른 정자와 달리 마을 곁에 있어 더욱 특별하다. 후산마을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걷기 시작했다. 걷는 내내 “배롱나무 꽃이 피어 있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조바심이 들었다. 명옥현 배롱나무는 다른 곳에 비해 꽃이 늦게 핀다고 한다. 늙수그레한 나무라서 피는 속도가 느리단다.

좁은 골목을 굽이굽이 오르며 주변 마을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 금세 명옥현 원림에 도착했다. 보자마자 탄성이 쏟아졌다. 배롱나무에 꽃이 가득했다. 연못 중앙에 심어둔 배롱나무를 제외하고 연못 주변으로 자리한 배롱나무는 꽃이 만발이다. 이곳 배롱나무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배롱나무와 다르긴 달랐다. 우선 크기가 압도적으로 크고, 생김새가 보통의 배롱나무보다 훨씬 더 고아했다. 배롱나무를 감상하다 보니, 배롱나무 꽃 틈에서 지붕만 간신히 빼꼼 내민 명옥현이 자태를 드러냈다. 이곳 원림을 제대로 조망하고자, 둑덕으로 올랐다. 주변의 산수 경관이 연못에 비추어 아름답다. 붉은 꽃으로 만발한 배롱나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즐겁다.

주변을 걸으며 배롱나무의 진짜 모습도 마주해야 한다. 어느 곳에서도 만날 수 없는 두툼한 몸통에 한번 놀라고, 올퉁불퉁하고 독특한 모양에 한 번 더 놀랄 것이다. 나무의 진짜 모습은 세월이 고스란히 반영된 수형에 있으니 말이다.

명옥현 원림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 후산길 103
문의 : 061-380-3752



태양처럼 열렬히 걷기

명옥현에 앉아 눈에 가득 배롱나무를 담았다. 조금 쉬었으니 걷고 싶어진다. 관방제림으로 향했다. 그야말로 뜨거운 태양이 폭포 내리친다. 이마에는 살 새 없이 땀이 주룩주룩 흘러내린다. 그런데도 관방제림을 찾은 이들은 더위에도 햇빛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걷거나 자전거를 탄다. 이곳을 즐기는 법은 찾는 이의 뜻에 달렸다. 벤치에 앉아 쉬어가도 좋고 유유자적 걸으며 유희해도 좋다. 걷다 배고픔을 느끼면, 관방제림이 시작되는 구간인 '국수거리'에서 국수 한 그릇 먹어도 그만이다.

'관방제'는 담양천의 제방이다. 담양천에 제방을 쌓은 건, 1648년의 일이다. 해마다 홍수로 가옥이 피해를 보자, 담양 부사 성이성(成以性, 1595~1664)이 수해를 막기 위해 축조했다. '관방제림'은 제방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숲이다. 느티나무·푸조나무·팽나무·벗나무가 섞여 숲을 이루는데, 약 1.2km 구간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관방제림에서는 걷는 것을 택했다. 나무와 직접 대면하는 방법이다. 이곳을 걷다 보니 나무의 진짜 가치를 알 것 같았다. 나무는 그늘이 되어 주었고 나무는 시원한 바람을 데리고도 왔다. 덕분에 한여름의 더위가 무색하리만큼 시원했다. 시골 어르신들이 왜 여름이면 나무 아래 널찍하니 평상을 깔고 휴식을



4.



4.
관방제림을 걸으니 나무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다. 시원한 바람, 젖은 그늘까지 더해지니 그야말로 여름을 나기 제격인 장소다.

5.
메타세쿼이아길에서 사람들은 무척 활기찼다.

6.
곳곳에서 떨어진 배롱나무 꽃잎을 만날 수 있었다.

7.
담양천이 유유히 흐른다.

관방제림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객사7길 37
문의 : 061-380-2812

10



메타세쿼이아길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메타세쿼이아로 12
문의 : 061-380-3149

5.

취했는지 알 것 같았다. 나무 그늘이 이토록 시원한 줄, 처음 알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의 싱그러움이 고스란히 전달된다. 나무가 매미처럼 맴맴 우는 소리도 감상할 수 있었다. 아름드리 자란 나무에서 경외심마저 느껴진다. 한 세월이 고작 백 년 남짓한 인간에 비한다면, 나무는 한 인간의 생이 끝나서도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하니 나무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관방제림이 끝나는 지점에는 '메타세쿼이아길'이 있다. 이 길은 1972년 담양-순창 간 국도 42호선을 건설하면서 조성됐다. 2000년 초 도로확장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는데, 이 길을 지키려 했던 담양 시민의 노력으로 도로확장 계획은 무산됐다. 덕분에 쭉쭉 뻗은 메타세쿼이아의 아름다운 수형을 마주하며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다. 나무가 만든 그늘에서 느리게 걷다 보면, 추억과 지나온 발자취가 아스라이 지나간다.

겨울은 나무의 진짜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계절이다. 오롯이 나무의 수형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름은 나무의 진짜 가치를 만날 수 있는 계절이다. 뜨거운 태양 아래, 나무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고 선선한 바람을 데려온다. 덕분에 여름이 한결 청량하다. 그런 의미에서 담양은 축복받은 땅이다. 가지각색의 나무로 사계절이 풍요롭기 때문이다. 명옥현에는 늙수그레한 배롱나무가 꽃을 피우고, 죽녹원에는 울울창창한 대나무숲이 청명함을 준다. 관방제림을 거닐며 나무의 세월을 만끽해 볼 수도 있고, 메타세쿼이아길을 거닐며 이국적인 낭만도 즐길 수 있다. 나무를 만나려거든 담양으로 가라 해야겠다. 이 여름날 담양을 여행하는 일은 나무에 흡뻑 취함과 같다. ☺

6.

7.



11



Special

紫
薇
花

역사

당 현종이

사랑한 꽃들

당 현종과 배롱나무

중국 삼서성 서안의 화청지(華清池)는 중국 중세·근대에서 중요한 역사 유적지다.

나는 2년 전 여름, 이곳에 찾아가 ‘배롱나무’를 만났다.

도착하기 전까지 ‘배롱나무가 없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배롱나무를 확인한 순간 그 불안이 싹 사라졌다. 화청지에서 배롱나무를 찾은 가장 큰 이유는, 배롱나무는 당 현종이 양귀비보다 더 사랑한 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글: 강판권(계명대학교 사학과 교수) 일러스트: 정윤미



화청지에서 만난 배롱나무

화청지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야외와 경내에 자리한 양귀비 상(像)이 눈에 띈다. 양귀비 상은 화청지의 주인공이 당 현종이 아니라, 그녀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현종은 기존의 탕청궁(湯泉宮)을 확장해 화청궁(華清宮)이라 이름 지었다. 그 앞으로 뜻을 만든 후에는 화청지라 이름을 고쳤다. 양귀비는 온천이 있어 이곳을 자주 찾았다고 한다. 현재 화청지는 온천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황제의 유탕인 구룡전(九龍殿) 연회탕, 현종이 양귀비에게 하사한 해당탕(海棠湯) 등을 비롯한 6문(門), 10전(殿), 4루(樓), 3각(閣), 5탕(湯)으로 이루어져 있다. 배롱나무는 경내 양귀비 상 앞에 산다.

현종이 양귀비에게 선사한 해당탕의 이름에는 유래가 있다. 어느 날, 현종은 흥경궁(興慶宮) 침향정(沈香亭)에서 양귀비를 불렀다. 그러나 양귀비는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일어나지 못했다. 그녀는 사람을 불러 부축을 받고서야 겨우 일어나 침향정에 도착했다. 양귀비는 술 냄새를 풍겼을 뿐만 아니라, 몸차림도 엉망이었다. 그러나 현종은 양귀비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도 화를 내기는커녕 웃으면서 “그대는 아직 술에 취해 있느냐?”라고 물었다. 양귀비는 현종의 물음에 “해당은 잠이 부족할 따름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처럼 양귀비는 자신을 장미과의 해당화라 불렀다. 화청지의 해당탕은 곧 양귀비를 의미하는 셈이다.

현종과 자미성

현종은 중국사(中國史)에서 배롱나무를 가장 사랑한 황제였다. 그는 자신이 근무하는 상서성을 '자미성(紫薇省)'이라 바꿀 만큼 배롱나무를 사랑했다. 자미성은 배롱나무를 의미하는 또 다른 이름이다. 자미성의 '자미'는 '붉은 배롱나무'를 의미한다. 자미의 '미'는 '배롱나무'를 의미하는 한자다. '미'는 보통 '장미'를 의미하는 한자이지만, '배롱나무'를 의미하는 한자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그런데 자미는 단순히 배롱나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미는 북두칠성의 동북쪽에 있는 열다섯 개의 별 가운데 하나인 '자미성(紫薇星)'을 의미한다. 자미성은 자미원(紫薇垣)이라 부른다. 자미성은 곧 천자의 자리이다. 따라서 자미성은 현종 자신을 일컫는 이름이다.

현종이 삼성(三省) 중 상서성을 자미성으로 바꾼 것은 개혁군주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개원(開元)'의 치(治)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현종의 전반부 정치는 좋은 평가를 받는다. 그는 배롱나무 꽃처럼 아주 정열적인 황제였다. 자미성은 그가 자신감을 갖고 통치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종과 양귀비의 비극적인 사랑

배롱나무는 현종이 양귀비를 만나기 전 가장 사랑한 존재였다. 현종은 양귀비를 만난 뒤부터 배롱나무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양귀비가 살아 있는 꽃이었기 때문이다. 현종은 부인인 무혜비

(武惠妃, 699~737)가 죽은 후, 양귀비를 만났다. 현종은 부인이 죽자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다. 환관 고력사(高力士, 684~762)는 현종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전국의 미인을 찾았다. 그러던 중 고력사는 현종의 18번째 아들인 수왕 이모의 비인 양옥환(양귀비)이 미인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그 후 현종에게 소개했다. 현종은 뛰어난 미모에 춤과 노래를 겸비한 양옥환에게 반해버렸다.

현종은 며느리인 양옥환을 아내로 맞았다. 현종의 행동은 유교사회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는 유교 관념으로 평가할 수 없다. 당나라의 지배층은 유목민족과 한족의 피가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종이 양옥환을 아내로 맞은 사실은, 도덕이 아니라 사랑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황제도 사랑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황제의 사랑은 개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국가 전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간단하지 않다. 현종이 아내를 잃은 뒤 양옥환을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백성은 고통의 시간이었다. 사랑에 눈이 먼 현종은 양귀비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하지만 당나라는 세계제국의 위상을 점차 잃어갔으며, 급기야 국내 반란으로 위기를 맞았다.

세계제국의 산물이자 현종과 양귀비의 총애를 받은 이란 출신 안록산(安祿山, 703년 추정~757)은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두 사람의 사랑을 비극으로 몰아넣었다.

안록산이 당나라의 수도 장안을 공격하자, 현종은 양귀비와 함께 사천으로 도망갔다. 그러나 마외역에서 현종을 호위하던 군사들이

양귀비의 죽음을 요구했다. 병사들은 자신들의 고통이 양귀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현종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랑하는 양귀비를 버렸다. 양귀비는 현종의 배반으로 피난길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17세에 당나라 황실에 들어간 양귀비는 23살에 현종을 만나 4년 만에 귀비에 올랐다.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았던 양귀비는 37세의 나이로 죽었다. 그녀의 삶은 헛되지 않아, 대신하여 '양귀비'라는 풀이름을 남겼다.

현종은 양귀비가 죽고 난 후 6년을 더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양귀비가 죽은 후 현종의 삶도 죽음과도 같았다. 양귀비가 죽은 후 그는 아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상황(上皇)의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은둔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배롱나무

배롱나무는 여름을 상징하는 나무다. 붉은 꽃이 작열하는 태양을 닮았을 뿐 아니라, 여름 동안 꽃을 피우기 때문이다. 배롱나무는 목백일홍의 우리말이며, 목백일홍은 백 일 동안 꽃이 붉게 피어 붙인 이름이다. 우리나라에서 배롱나무처럼 오랫동안 꽃을 피우는 나무는 무궁화를 제외하면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요즘은 흰색과 보라색으로 꽃이 피는 배롱나무가 등장해, 한자 이름 목백일홍을 머쓱하게 만든다.

요즘 배롱나무는 전국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 그러나 10년 전만 해도 배롱나무는 주로 특정 공간에서만 만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예에 따라 배롱나무를 궁궐과 관청에 많이 심었다. 그래서 경복궁, 창덕궁, 종묘, 각 지역의 향교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조선 성리학자의 공간이었던 서원과 정자에서도 배롱나무는 빠질 수 없다. 조선시대 양반의 사당, 무덤에 심어진 배롱나무는 중요한 문화재다. 현재 나이 많은 배롱나무 대부분은 조선시대의 성리학자와 관련한 공간에 살고 있다.

배롱나무의 '꽃'과 '줄기'는 조선의 성리학자가 이 나무를 선택하게 한 결정적인 이유였다. 배롱나무의 붉은 꽃은 '변하지 않는 마음'을 뜻한다. 조선시대의 각종 기념 공간에 배롱나무를 심은 것은 후손들의 변치 않는 마음, 즉 '단심(丹心)'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단심은 조상과 임금은 물론 자신에 대한 깊은 마음을 의미한다.

전국에는 유명한 배롱나무가 많다. 그중에서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의 동래정씨 시조묘 배롱나무는 우리나라에서 나이가 가장 많다. 800살이자 천연기념물 제168호다. 내가 사는 대구광역시에도 표충단, 현풍곽씨구택 사당 앞, 하목정 사당 앞에 300살이 넘는 배롱나무가 산다. 전라남도 담양군의 명옥현,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의 병산서원 등 전국 곳곳에서도 멋진 배롱나무를 만날 수 있다.

이처럼 배롱나무를 만날 수 있는 일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지만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한 그루 배롱나무를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만,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



Special

紫
微
花

과학

수줍은 여인을

닮았네

배롱나무 생태

배롱나무는 사람에게 호기심의 대상이다.

붉은 꽃이 여름 내내 피어있고 나무 수피는 얇고 매끄럽기 때문이다.

글. 오찬진(천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목재가공연구팀장, 임학박사)



한여름 내내 꽃 피우는 나무

여름철 무더위에도 붉은 꽃이 백 일을 간다고 해서 '백일홍(百日紅)'이라 한다. 초본식물 백일홍과 구별하여 '목백일홍(나무백일홍)'이라고도 부른다. 원래는 '배기룡나무'로 부르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배롱나무가 되었다.

대부분 꽃은 꽃대마다 동시에 꽃을 피우지만, 배롱나무는 백 일 동안 한 꽃이 피어 있는 게 아니다. 하나의 꽃이 지면 다른 꽃이 피고, 떨어지면 또 새 꽃봉오리를 피운다. 원뿔 모양으로 많은 꽃이 아래에서부터 차례로 피고 진다. 한여름부터 초기을 까지 백 일 동안 아름답게 꽃이 피어올라 간다. 오래된 배롱나무의 수피는 연한 홍자색을 띠고 껍질이 벗겨진 자리에는 흰 얼룩무늬가 생긴다. 수피는 매우 얇고 매끄럽다.

배롱나무는 간지러움을 탄다고 하여 '간지럼나무'라고도 부른다. 매끄러운 수피를 손톱으로 간질간질 간지럼을 태우면, 가는 가지와 잎이 스르르 떨면서 움직인다. 이를 보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그러나 배롱나무는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세포가 없다. 즉, 간지럼을 타는 것이 아니다.

배롱나무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 간지럼을 타는 나무를 한자로 '파양수(怕陽樹)'라 부른다. 일본 사람들은 '완승이 미끄럼 나무'라 부르는데, 모두 수피가 매우 미끄러워 붙여진 이름이다. 중국에서는 '자미화(紫微花)'라 한다. 배롱나무가 많은 당나라 장안의 성읍을 자미성이 라 부를 정도다. 제주도에서는 '저금 타는 낭'이라고 부르는데, 이 역시 간지럼을 타는 나무란 뜻의 제주 방언이다. 그 밖에 간질나무, 만당홍(滿堂紅) 등이 있다.

배롱나무의 생태적 특성

생태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배롱나무는 낙엽성 소교목으로 높이가 7m 정도이다. 나무 껍질은 갈색 또는 연한 홍자색이다. 껍질이 벗겨진 자리는 황백색으로 부드러우며 잔가지는 네모져 있다. 잎은 두껍고 미주나마 타원형이다. 꽃은 가지 끝에 원뿔모양으로 홍자색, 분홍색, 흰색으로 핀다. 꽃잎은 6개이며, 상부는 주름져 구불거리고 하부는 기늘다. 열매는 10월에 갈색으로 익는다. 이 중 흰 꽃으로 핀 나무를 '흰배롱나무'라 한다.

원산지는 중국 남부로, 당나라 때부터 관청의 틀에 많이 심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 중부 이남의 오래된 절이나 마을 부근 정자 옆에 관상용으로 심었다. 요즘 남부지방에서는 가로수와 공원 관상수로 배롱나무를 많이 심어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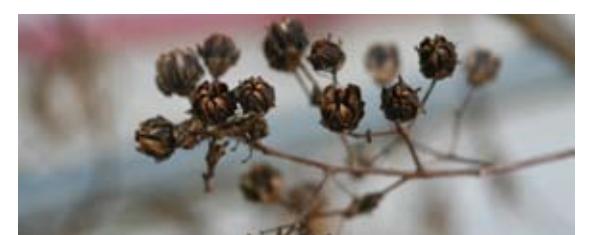
햇빛이 들고 습기가 있는 비옥한 땅을 좋아한다. 추위는 싫어해 중부 이북지방에서는 겨울철 방한 조치를 해줘야 잘 자란다. 요즘에는 기후가 따뜻해져 북쪽에서도 많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름 내내 붉은 꽃을 피우니, 일편단심 절개를 굽히지 않는 선비의 성정과도 같다. 그래서 옛날 사대부 선비들은 배롱나무를 많이 심었다.

곳곳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강릉 오죽헌 경내에는 600년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배롱나무가 있다. 이 나무는 오죽헌을 지켜온 '수호목' 역할을 톡톡히 한다. 담양 명옥헌 원림에는 정자를 중심으로 수령 100년 정도 된 배롱나무 20여 그루가 자리한다. 주변 노송과 조화를 이뤄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논산 명재고택, 담양 소쇄원 · 식영정, 강진 백련사, 고창 선운사도 배롱나무 명소이다.

쓰임새도 많다. 나뭇결이 곱고 단단하여 여러 가지 세공품을 만들기에 좋다. 잎과 뿌리는 기침 · 백일해 · 방광염 · 지혈작용 · 생리불순 · 냉증 · 불임증 치료에 좋다고 한다. 경상북도는 생활력이 강한 경북도민의 '의지력', 단아한 '기품'이 배롱나무와 서로 통한다 하여, 배롱나무를 도화(道化)로 지정했다. ●

●
배
롱
나
무



Special

紫微花

인포그래픽

빨갛고

윤기 나는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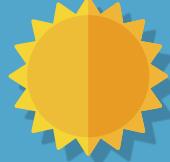
배롱나무 정보

여름철 꽃을 피워 여름 대표 나무로 꼽히는 배롱나무.

배롱나무는 심심한 여름날을, 화려한 꽃을 피워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

화려한 꽃부터, 잎, 뿌리까지 버릴 것 없이 요긴하고 가치 있는 배롱나무에 대해 알아보자.

생육 특징



양지를 좋아하며
그늘에서는 잘 자라지 못한다.



7~9월에 꽃이 피고
10월에 열매가 익는다.



다 자란
최대 높이 5~6m



꽃잎에는 주름이 자글자글
그래서 영어 이름도
'크레이프 머틀(Crape myrtle)'

도를 대표하는 꽃



경상북도에서는 배롱나무
꽃을 도를 대표하는
꽃으로 심고 있다.

드물게 피는 흰 꽃



생육 조건에 따라 배롱나무는
연한 분홍색, 짙은 자주색처럼
다양한 색이 있다.
드물게 흰색으로 피는
배롱나무도 있는데, 이를
'흰배롱나무'라한다.
특히 인천광역시 등지에서 자란다.

가장 특별한 배롱나무



부산 양정동 배롱나무
(천연기념물 제168호)

- 약 **800년** 된 나무
- 보통 나무보다 훨씬 큰 키 **8m** 이상
- 가슴 높이 둘레 **4m**

배롱나무의 별명



원숭이 미끄럼 나무

나무껍질이 무척 매끄러워서
원숭이가 미끄러진다 하여 붙인 이름



양반 나무

양반처럼 느긋하게 기다리다
늦게 씩이 돋는다 하여 붙인 이름

요긴한 배롱나무



잎 – 자미엽(紫薇葉)

잎은 '타닌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염료식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흑갈색 계통의 색을 염을 수 있다.



뿌리 – 자미근(紫薇根)

지혈 · 해독 · 천식에 효능이 있다.
물 700ml에 뿌리 9~15g 달여
차처럼 마신다.



‘동쪽’으로 뻗은 배롱나무 가지

물 1.5L에 뿌리 35~45g를 달여 마시면 ‘방광염’에 즉효를 본다.
해 또는 동쪽으로 뻗는 가지에
약효 성분이 가장 많이 모여 있기 때문!

백일홍은 배롱나무? 배롱나무는 백일홍?



- 이름 : 100일 동안 꽃을 피운다하여
'백일홍'이라는
같은 이름이 붙었지만,
엄연히 다른 식물!



- 이름 : 꽃이 100일 동안 피어 있어 '백일홍 나무'라고도 부름
- 꽃 : 한 번 피운 꽃을 오래도록 매달고 있다.
가지에 새로운 꽃이 계속 반복해서 피어난다.

아찔한 산맥이 굽이굽이 이어지는 곳

미국 그랜드티턴 국립공원

장엄한 산세, 맑은 호수가 아름다운 풍광을 만든다. 특히 그랜드 티턴 국립공원에서는 어디에서나 눈 덮인 산봉우리를 만날 수 있다. 평평한 대지 위, 우뚝 솟은 티턴 산맥이다. 티턴 산맥 아래로는 호수와 강이 많다. 티턴 산맥에서 녹은 물이 만든 것들이다. 국립공원 주변으로는 산책로가 마련돼 있다. 쉬엄쉬엄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광활하게 펼쳐진 산맥을 감상할 수 있다.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선사한다. ☺



식물도 여름을

시원하게 나는 방법

수경재배

화분과 흙이 필요 없다. 오로지 '물'과 '유리병'만 있으면 된다.
물을 줘야 하는 번거로움은 덜하고 바라보는 즐거움은 두 배다.
흙 없이 물만으로 식물을 기르는 수경재배, 그 매력적인 재배에 대해 알아보자.

스타일링. 라비앙플레르

*Scindapsus & Calathea*
스킨답서 & 칼라테아*Parlour Palm*
테이블야자*Peperomia*
수박페페*Ivy*
아이비*Multicolor*
멀티칼라

식물을 위한 여름

물에서 식물을 기른다

수경재배는 흙을 사용하지 않고 물에서 식물을 키우는 방법을 일컫는다. 물 재배 또는 물 가꾸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수경재배는 흙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보다 훨씬 간편하고 수월하다. 흙에서는 물 주기를 정해 물을 주어야 한다. 하지만 수경재배는 물을 채워 넣기만 하면 끝! 다만, 수경재배는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돗물은 실온에 하루 정도 받아놓았다가 사용 한다. 염소 성분이 날아간다.'

흙에서 재배하는 경우 뿌리가 물을 잘 흡수하는지, 습기는 쟁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때문에 식물을 쉽게 죽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투명한 유리에 식물을 재배하면 뿌리의 상태는 물론 성장 모습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 식물뿐만 아니라, 깨끗한 채소, 작물도 재배할 수 있다.

장식 효과도 톡톡히 볼 수 있다. 유리 화병에 물을 채우고 아기자기하고 예쁜 돌을 넣어 담으면 식물이 뜨지 않음은 물론, 장식 효과도 낸다. 자신의 취향에 맞춰 아기자기한 병, 고급스러운 도기를



수경재배 만들기

Materials 재료



수경재배할 식물, 유리병, 자갈, 물, 하이드로볼(굵은 자갈 같은 돌) 또는 맥반



수경재배할 화초를 포트에서 빼내고 뿌리에 붙어 있는 흙을 다 털어낸다.(상한 뿌리는 잘라낸다.)



흐르는 물로 뿌리를 깨끗이 씻는다. 흙이 잘 떨어지지 않을 경우, 물에 잠시 동안 담가 놓는다.



수경재배용 하이드로볼(또는 모래, 자갈, 맥반석 등)은 1시간기량 물에 담가 독소를 제거한다.



수경재배할 그릇에 하이드로볼을 담는다.

사용하면 그 효과는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바닥에 배수구가 없어도 수경재배 시 사용할 수 있으니, 어떤 화기를 선택해도 상관없다. 때문에 화기 선택의 폭이 넓다.

수경재배를 할 수 있는 식물은 대부분 '수엽뿌리'로 되어 있는 외떡잎 식물이다. 툴립·히아신스·수선화 같은 구근류도 수경재배할 수 있다. 파인애플과 같은 과수류, 토란·고구마·양파·콩나물과 같은 채소류, 베고니아·바이올렛·제라늄·마리골드와 같은 초화류, 페레로미아·아이비·행운목과 같은 관엽류는 모두 수경재배가 가능하다.

수경재배, 알고 키우자

① 같은 화초라도 흙에서 키울 때와 물에서 키울 때가 다르다. 예로, 아이비의 경우 흙에서 키울 때는 건조하게 관리해야 잘 자란다. 수경재배로 키울 경우엔 물만 채워주면 금세 뿌리를 내려 잘 자란다.

② 수경재배에 사용하는 물은 하루 전에 받아두었다가 쓰는 게 좋다. 즉, 물의 온도를 실온과 같게 만들어야 한다.

③ 물을 같아주는 주기는 따로 없다. 물이 줄어든 만큼 그때그때 보충한다. 여름철에 수경재배할 시 높은 온도, 습도 때문에 물이 쉽게 마를 수 있다. 때문에 여름철에는 특히 물 관리에 주의한다.

④ 물이 많이 줄지 않았다 해도 물빛이 탁해지면 바로 같아준다. 이때 식물을 꺼내고 뿌리를 흐르는 물에 씻어주면 좋다. 그릇도 함께 닦아주면 더 좋다.

⑤ 강한 햇빛을 보면 물이끼가 금방금방 낀다. 돌, 하이드로볼에 이끼가끼면 다시 씻어서 넣어준다.

⑥ 실내에서 수경재배를 할 경우 통풍이 잘되는 곳에 둔다. 빛은 조명으로도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 하지만 직사광선은 피한다. 이끼가 잘 낄 수 있다.

⑦ 화초에 별레가 생기는 이유는 모두 '흙' 때문이다. 수경재배는 별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⑧ 수경재배가 가능한 식물 : 알로카시아·아마존리카·달개비·행운목·신고나움·부레옥잠·물배추·수선화·히아신스·크로커스·툴립·스킨답서·스파티필름·시페루스·고구마·미나리·아이비·워터코인·호야·테이블야자·안스리움·개운죽 등

How to make

만드는 법



물에 영양제를 희석시켜 준비한다.(영양제 종류마다 희석 농도가 다르니 사용 설명서를 잘 참고해야 한다.)



그릇에 화초를 넣고 준비된 물을 부어주면 완성. 화초가 그릇 안에서 중심을 잡지 못해 쓰러지는 경우가 있다. 그릇 밑 부분에 돌을 조금 깔아준 뒤, 화초를 옮겨 가운데 위치하도록 자리 잡는다. 나머지 부분을 돌로 채워 고정한다.

Tip.

① 화초가 물만 먹고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다. 하지만 가끔은 영양 보충을 해주는 것도 좋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액체 비료를 물에 한두 방울씩 떨어뜨려 준다.

② 유리병에 수경재배를 하면 여름철엔 아주 시원해 보이고 청량감도 든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춥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럴 경우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빈 그릇에 수경재배를 하면 좋다. 찻주전자·커피잔·향아리·사기그릇 등을 이용하면 된다.



산 그리고 사람

빛을 담는 찰나의 순간

영원을 담는 순간

사진작가 배병우

배병우 그의 이름 뒤에는 '소나무'가 늘 뒤따른다. 소나무는 한국의 대표적인 자연 유산이며,

한국인의 정체성 그 자체다. 가장 한국적인 나무 그래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나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넘쳐나는 것이 소나무요, 그래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역시 소나무다.

그런 소나무를 향해 배병우 작가는 수십 년 동안 셔터를 눌렀다.

가장 익숙한 것, 가장 친숙한 것, 바로 소나무에 가장 한국적인 정서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사진으로 빛을 담는 사람

배병우 작가는 베를린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지 이제 막 일주일 정도 됐다고 했다. 대중없이 한국과 국외를 오간다는 그에게서 피곤한 기색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활기찼고 눈에서는 총기까지 느껴졌다. 더불어 굵고 단단했으며, 묵직했다. 마치 소나무를 보는 듯했다.

배병우 작가는 소나무 사진으로 명성을 얻었다. 2005년 엘튼 존이 그의 소나무 사진을 구입한 것이 알려진 이후, 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그의 나이 56세에 찾아온 일이었다. 사실 그가 처음 카메라에 담은 건 소나무가 아니라 바다였다. 이보다 훨씬 더 전에는 카메라가 아닌 붓으로 세상을 담았다.

“그림을 좋아해서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곧잘 그렸어요. 선생님께 칭찬도 많이 받았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자연스레 사진을 찍었어요. 다른 매력을 찾기 위해서라기보다. 그림의 연장선 상이었어요. 다만 표현의 도구가 붓에서 카메라로 바뀌었을 뿐이죠. 표현하는 공간도 평면이라는 점에서 다른 게 없었어요.”

소나무를 만나다

본격적으로 ‘사진가’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건 스물다섯 무렵이었다. 그 때 주제 삼은 게 바로 바다다. 바다는 유년 시절의 추억이 깃든 곳이자, 예술가로서의 삶이 발현된 공간이기도 하다. 어린 시절 그는 바다에 나가 수영을 하고 바다를 주제 삼아 그림을 그렸다. 여수 출신인 배병우

작가에게 바다는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은 절대적인 존재인 셈이다. 바다를 찍던 그가 소나무를 만난 건 필연이자 우연이었던 것 같다. 그 당시 우리 미술계는 외국의 사조를 따르기 급급했다. 때문에 그때 당시의 화두는 ‘국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한국성’이었다. 배병우 작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가장 한국적인 것을 만들기 위해 고민했다. 그때 운명처럼 만난 것이 소나무다. 그가 생각하기에 소나무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매우 훌륭한 ‘한국 나무’였다.

“소나무는 아주 오랜 시간 우리 민족과 함께 했어요. 신화에서도 소나무는 특별하게 그려져 있죠. 황룡사 벽에 그려 있었다던 소나무 전설만 해도 그래요. 새들이 소나무 벽화에 앉으려다 부딪쳐 떨어졌대요. 이처럼 소나무는 문학뿐만 아니라, 예술 전체에 녹아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살았어요. 우리 문화는 외국의 것들을 답습하기에만 급급했죠. 그런 상황에서 나는, 우리는 누구인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가장 우리다운 것을 찾기 시작했고 운이 좋게도 소나무를 만난 거죠.”

초창기에는 소나무를 찍는다고 하니 냉소도 쏟아졌다. 그 혼란 것을 ‘왜 찍느냐’였다. 하지만 그는 꾋꿋했다. 그의 사진을 제일 먼저 알아본 곳은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에서였다. 가장 한국적인 것, 이를 가장 한국적으로 담아낸 그의 사진이 외국에서 먼저 인정받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배병우 작가는 소나무뿐만 아니라, 바다, 오름, 고궁을 소재로 한국의 아름다운 것들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그가

이토록 한국적인 것을 담는데 매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오히려 반문해 왔다.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막상 대답하려니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배병우 작가는 당연한 결과라는 듯, 말을 이어갔다.

“정작 한국적인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더 한국적인 것을 찾고자 하고, 한국적인 것을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자연 그대로의 나무

그는 여전히 필름을 고수한다. 사진에 어떤 효과도 덧씌우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프레임에 담긴 소나무는 매우 역동적이다. 마치 살아 있는 듯 하늘을 향해 유영한다. 땅에서는 에너지가 넘쳐흐르고 여백에는 소나무의 기운으로 빠곡하다. 끊임없는 고뇌와 오랜 시간 피조물을 관조한 데서 탄생한 결과물이다. 이는 보는 이로 하여금 울림이나 공명 같은 것들을 느끼게 한다.

1980년부터 소나무를 찍기 시작해, 여전히 소나무를 담는 배병우 작가. 그때나 지금이나 소나무를 생각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자신이 나이 먹는 만큼, 소나무도 아름드리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그저 멋 있단다. 소나무를 시작으로 배병우 작가는 한국의 나무에 대해서도 침이 마르도록 열변을 토했다. 너무나도 삭막한 세상 나무를 심어야 한다. 나무가 더욱 잘 자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2.

3.

나무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무지하다.

“나무도 인간과 똑같은 생명체입니다. 사람은 움직이고 나무는 움직이지 못할 뿐이죠. 하지만 나무는 한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천 년 만년 살아가요. 우리는 겨우 백 년 짐짓 살다가는데 왜 나무를 존중하지 않을까요. 나무도 동물도 모두 하나의 인격체처럼 생각하고 존중해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지나친 보호는 지양하지 않는다. 나무가 죽어 가면, 죽게 내버려두는 것이 나무에 대한 배려다. 나무를 보호한답시고 쳐 놓은 철조망과 두툼한 쇠뭉치는 오히려 나무를 괴롭히는 행위다. 나무를 위한답시고 행해지는 관행 또한 나무를 망치는 일이다. 나무를 하나의 인격체처럼 존중하고 자연 그대로 흐르도록 두는 것, 그가 생각하는 나무와의 공생법이다.

그는 앞으로도 사진을 찍기 위해 산으로 바다로 떠날 것이다. 가장 가까운 계획은 바오밥나무를 찍으러 마카스카르에 가는 것이다. 먼 계획은 없다. 그래서인지 따로 건강관리도 하지 않는단다. 술은 좀 마신다. 풍경을 찍기 위해 산을 타는 것인지, 일부러 산을 타는 일도 없다. 그저 찍기 위해 나서는 것, 찍고자 움직일 뿐이다. 어쩌면 그의 사진에서 느껴지는 강렬함은 배병우 그 자체가 반영된 결과인지도 모른다. 그의 자연스러움이 남아 있는 한, 그의 사진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가장 한국적인 것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

1.



1.

배병우 작가에게 소나무는 가장 한국적이면서 아름다운 나무다.

2.

1980년부터 소나무를 찍기 시작한 배병우 작가. 그때나 지금이나 소나무를 생각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3.

그의 작업실 곳곳에는 수많은 책이 놓여있다.

profile

사진작가 배병우

전남 여수 출신으로, 통일대 미대에서 공부했다. 한국의 자연, 특히 소나무를 통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종묘, 창덕궁, 릉 등 모든 대상에서 그 대상만의 에너지를 찾고 있다.





약초도감

뙤약볕 아래

붉게 빛나리

참나리

신록이 우거진 산천에 유독 주황빛으로 빛나는 산약초가 있다.

나리 중에서도 최고로 여긴다는 ‘참나리’가 바로 그것.

무엇보다 참나리는 다른 나리들에 비해 길쭉길쭉하니 키가 크다.

다 자란 키가 1m를 훌쩍 넘는다고 하니, 단연 나리들 중 최고다.

여름 뵐약볕 아래, 힘찬 기세를 드러내는 참나리를 만나보자.

감수. 전권식 박사(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

복스럽게 생겼네

영어로는 릴리(Lily), 생약명으로 ‘백합’이라고 부른다. 백자의 ‘백’은 흰 ‘白’이 아니라, 일백 ‘百’자다. 나리 알뿌리에 비늘줄기(인경)가 많아 붙은 이름이다.

참나리는 여름을 대표하는 산약초다. 여름이 한창인 7~8월경, 시원 시원하게 쭉쭉 뻗어 가며 자란다. 줄기 끝에 주황색 꽃이 3~10송이가 열리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독특하다. 어른 주먹만 한 꽃송이는 활짝 펼쳐져 있다. 꽃잎에는 주근깨처럼 작은 반점들이 다닥다닥 나 있다. 거기에 꽃잎 밖으로 길게 뻗은 암술과 수술이 참나리의 매력을 더한다.

다른 나리 종류는 키가 사람 무릎 높이 정도다. 하지만 나리 중에 진짜 나리인 참나리는 다 자란 키가 1m를 넘는다. 키 덕분인지 몰라도 호랑 나비가 유독 많이 참나리에 날아든다.

참나리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 참나리의 잎겨드랑에는 콩알처럼 생긴 ‘주아(珠芽)’가 있다. 바로 주아가 땅에 떨어지면서 종자처럼 번식한다. 주아를 참나리의 씨앗이라 여기는데, 잘못된 생각이다.

효능과 효과

참나리의 ‘비늘줄기’를 약용으로 사용한다. 녹말, 아스코르브산이 들어 있다. 약재로 활용하려면 늦가을, 이른봄에 비늘줄기를 캔다. 물에 잠깐 담갔다가 건진 후, 살짝 찐 뒤에 말린다. 해소, 천식, 허한, 마른기침에 효과적이다. 신경쇠약으로 잠을 못 이루거나 열병을 앓을 때, 가슴이 뛰고 진정되지 않을 때 좋다. 옛날에는 비늘줄기를 구황식물로 이용했다. 비늘줄기를 써서 찢은 뒤 떡을 만들어 먹었다고 한다.

참나리 알뿌리는 콜히친, 알카로이드, 단백질, 지방 등을 함유한다. 달여 마시면 기침이 멈추고 열이 내린다. 고름 제거에도 좋다. 알뿌리를 씻어 흙을 제거하고 믹서기나 강판을 이용해 간다. 여기에 식초를 조금 섞어준다. 환부에 붙이고 봉대를 감아 고정시킨다. 봉대가 마르면 교환한다. 하루 2~3번 정도 교환하면 된다. 경미한 화상에도 좋다. 꽃잎을 병 속에 넣어 밀봉한다. 걸쭉할 정도로 삭으면, 이걸 환부에 바른다.

죽을 만들어 먹으면 더위 나는 데도 좋다. 참나리에 꿀을 넣고 끓인다. 그 다음 쌀을 넣어 푹 끓이면 된다. 녹두를 넣어도 좋다. ☺

How to eat

어떻게 먹을까

꽃 차



1. 꽃을 손질해 말린다.



2. 방습제를 넣은 밀폐용기에 보관한다.



3. 찻잔에 꽃잎을 한 숟가락 넣고 물을 부어 마신다.

술 담그기

이용 부위 : 꽃, 열매, 뿌리 등 전체를 다 이용한다. / 꽃잎 : 2~3개월, 뿌리 : 4~5개월



1. 7~8월에 꽃을 채집한다.



2. 물로 깨끗하게 헹구고, 물기를 뺀 후 유리병이나 항아리에 담는다.



3. 재료 2~3배 분량의 술을 붓고 난 후 밀봉하여 보관한다.

엄마와 함께라면
너와 함께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지

보은 개안 전통마을숲

엄마와 딸만큼 특별한 사이가 있을까.

엄마와 딸은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이며, 평생 함께할 인생의 동반자이다.

운동장에서 공차기하며 우정을 쌓는 부자와는 다른, 끈끈한 무언가가 둘 사이에는 존재한다.

함께 있어 모든 풍경이 아름다운 모녀가 개안 전통마을숲을 찾았다.





1. 2.

엄마와 딸, 그 특별함

엄마와 딸의 관계가 다 그렇지 않은가. 살갑게 손잡고 장 보러 가는 모녀, 밤늦도록 속내 훌훌 털어내는 모녀, 목욕 가방 한 손에 쥐고 둘레둘레 목욕탕 가는 모녀. 아무튼 부자와는 다른, 어떤 뜨거운 것이 둘 사이에는 존재한다. 그건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고 어떤 모습으로도 담아낼 수 없다.
엄마와 함께라면 하루하루가 특별하다는 유진영 씨가 엄마와 함께 개안 전통마을숲을 찾았다.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근래에는 유진영 씨는 학교 생활에 바빠 엄마는 직장 생활에 쫓겨 가까운 곳에도 나가지 못 했단다. 어디를 가야겠다 생각하는 것조차, 굳게 마음먹어야 가능한 일이나 차일피일 미뤄만 왔다.
“학교가 방학했어도 아르바이트에 쫓겨 시간 낼 틈이 없었어요. 엄마·휴가에 맞춰 모처럼 짬을 냈죠.”
모처럼 함께 맞은 휴가, 딸은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계획을 모색했다. 도심에서는 만날 수 없는 전통 마을숲을 걷는 일. 싱그러운 솔숲으로 모녀가 걸어 들어왔다.

소나무 우거진 전통숲

삼가천 하개교를 건너면 소나무 숲인 개안 전통마을숲과 이 숲에 둘러싸인 ‘선병국 가옥’이 나온다. 숲에는 소나무뿐만 아니라, 아름드리 거목 몇 그루가 선병국 가옥을 지키듯 서 있다. 이곳 형상은 참으로 독특하다. 마을숲을 빙 둘러싸서 삼가천이 흐른다. 때문에 숲은 마치 ‘섬’에 있는 듯하다. 주변으로 마르지 않는 개천이 흐르고 또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가 있으니, 가옥에는 정원이 따로 필요 없다.

숲으로 들어서자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의 세상이 펼쳐진다. 잡초는 사람의 손길을 타지 않아 무성하게도 자라있다. 걷는 내내 싱그러움이 온몸에 전달된다. 솔숲에 들어서서 길을 천천히 걷는다. 짙은 그늘 덕에 아늑하고 시원하다. 숲이 우거져 원시림 같기도 하고 터널 같기도 하다. 선병국 가옥이 나오기 전까지는 솔숲으로만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모녀는 가슴이 두근거린다. 오래된 가옥이야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다지만, 이처럼 숲이 우거진 풍경은 모녀에게 진풍경이다. 엄마는 ‘옛날엔 모두 이런 풍경이었지’ 하며 어린 시절을 회상한다. 아늑한 추억이 바람에 실려 모녀에게 날아오는 것 같다.

개안 전통마을숲은 가옥을 가꾸는 후세들의 숲이기도 하고 동네 주민의 쉼터가 되기도 한다. 선조가 이 숲을 조성할 때 심었을 뜻처럼, 주민 그리고 모든 관광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소인 샘이다. 마을숲은 오랜



선병국 가옥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개안리
148-1외 1필지
문의 및 안내 : 043-543-7177

1. 담벼락에는 담쟁이덩굴로 가득하고, 길목 곳곳에는 소나무들로 가득하다.

2. 선병국 가옥. 선영홍공은 그의 아들과 함께 가옥을 지었다. 가옥에는 방만 총 99칸이나 된다고 한다.

3. 삼가천 하개교를 건너면 소나무 숲인 개안 전통마을숲과 이 숲에 둘러싸인 선병국 가옥이 나온다. 숲에는 소나무 뿐만 아니라, 아름드리 거목 몇 그루가 선병국 가옥을 지키듯 서 있다.

전통과 문화가 녹아있는 ‘인공림’을 말한다. 우리 조상은 마을을 형성할 때 마을의 평온을 위해 숲을 기꿨다. 숲은 마을을 이롭게 해줄 뿐만 아니라, 홍수 피해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마을을 보호한다. 몇 그루의 노거수가 숲을 이뤄도 혹은 고목 한두 그루만 있어도 모두 마을숲이다. 하지만 마을숲은 오랜 시간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며 훼손되거나 사라졌다. 산림청은 마을숲의 본 기능을 회복하고 그 전통을 계승하고자 2003년부터 마을숲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인 전통마을숲 역시,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재탄생했다.

솔숲에 들어서면, 마치 신수화 안으로 풍덩 빠진 듯한 기분도 든다. 경탄이 절로 나오는 풍경에서, 엄마는 딸을 위해 아는 지식을 총동원한다. 나무와 식물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이름을 가르쳐 준다. 그런 엄마가 딸은 무척 신기할 따름이다. “이건 계수나무네. 이건 씀바귀네.” “엄마는 이걸 어떻게 다 알아?” 엄마의 모습이 딸은 낯설면서도 새롭다.

솔숲을 지나자 수백 개의 장독대가 모녀를 반긴다. “와 예쁘다” 헝아리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 모습을 보자, 모녀는 탄성을 자아냈다. 바로 카메라를 들어 서로를 찍어 주기 바쁘다. 어쩐지 그 모습이 무척이나 익숙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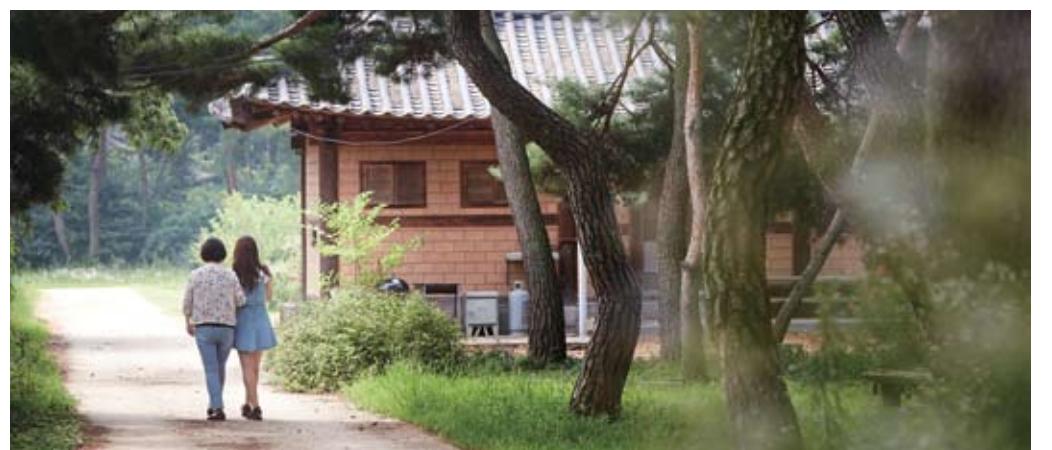
사뿐사뿐 나직나직

수백 개의 장독대를 지나, 왼쪽으로 난 길을 따라가면 선병국 가옥이 자리한다. 가옥을 지은 이는 보성 선씨 참의공파 18세손 선영홍공(宣永鴻公)이다. 그는 전남 고흥 거금도의 ‘거상’이었는데, 육지로 이사하기를 늘 꿈꿔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섬에 집을 지으라’는 꿈을 꾼다. 그는 전국의 풍수가를 시켜 명당을 알아오게 했다. 그중 그가 선택한 곳이 바로 이곳, 충북 보은군 장안면 개안리다. 선영홍공은 아들과 함께 1919년부터 이곳에 집을 짓기 시작했다. 당대 최고의 목수만 불러 집을 짓게 하고, 또 최고의 대우만을 해줬다고 전해진다. 그렇게 가옥은 1924년 완성됐고 방만 해도 총 99칸이나 된다.

집안의 효자와 열부를 기르는 ‘효열각’ 뒤로 돌아가면 오솔길이 나온다. 오솔길에 들어서자 모녀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맑은 공기를 마신다. 도심에서 지친 몸과 마음이 자연스레 풀리는 기분이다. 어디선가 실랑실탕 불어오는 바람이 솔 향기를 가득 실어왔다. 걸을수록 걸음이 더욱 가벼워지니, 아마도 솔숲의 향과 맑은 공기는 힐링 효과가 있는 게 분명하다.

“마을숲의 꽃과 나무는 정말 자연 그대로이던데요? 도심에서 만나는 나무와 꽃은 모두 똑같잖아요. 일렬로 서 있고 다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고. 나무와 꽃이 이렇게 예쁠 줄 몰랐어요. 이름을 하나하나 알려준 엄마 덕분에 나무와 꽃이 더욱 특별했던 것 같아요.”

푸른 바다 대신 솔숲의 우거진 녹음을 선택한 두 사람. 달랑 몇 달 남은 달력처럼, 두 사람은 마을숲을 걸으며 서로에게 바라는 마음속 욕심을 다 걷어냈다. 바라는 건 단 하나. 묻지 않아도 분명 똑같을 것이다. 엄마가 행복해지는 일, 내 딸이 행복해지는 일. ☺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어떤 날 숲과 함께 숲으로 떠날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숲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독자 분은 독자 엑서. 이메일을 통해 참여 부탁드립니다.’

임산물로 만드는

여름 보양식

구기자 · 산마

가만히 있어도 이마에 땀은 송글송글 맺히고
조금만 걸어도 기운마저 쭉쭉 빠지는 이 한여름.

무엇보다 먹는 것이 힘이다.

우리 임산물로 즐기는 여름 보양식!

요리 & 스타일링: 김보선 어시스트: 박재원



구기자 떡 수단

재료

구기자 10g, 물 4컵, 설탕 6큰술, 칡쌀경단
(찹쌀가루 1컵, 소금 약간, 뜨거운 물 1/2컵),
잣 약간

만들기

1. 구기자는 맑은 물에 행궈 씻는다. 행군 구기자 를 냄비에 넣고 물을 부어 중약불에서 끓여 맑은 물을 끓인다. 체에 걸려 식힌다.
2. 1에 설탕을 넣고 냉장고에 넣어 차게 식힌다.
3. 칡쌀 경단을 만든다. 볼에 칡쌀가루, 소금, 뜨거운 물을 붓고 반죽한다. 동그란 모양으로 빚는다.
4. 3을 끓는 물에 넣고 익힌다. 떠오르면 건져 찬물에 행궈 식히고, 2에 담근 후 잣을 띠운다.

Tip.

구기자의 향을 더 진하게 내고 싶다면, 칡쌀경단 반죽에 물 대신 구기자 우린 물을 사용한다.

산마 닭 둘깨탕

재료

닭 가슴살 2장, 산마 15cm 길이 1토막, 애호박 3cm 길이 1토막, 홍고추 1/2개, 다진 마늘 1큰술, 칡쌀가루 4+ 1/3큰술, 국간장 5작은술, 들깻가루 5~6큰술, 물 7컵, 소금 약간

만들기

1. 냄비에 물과 다진 마늘을 넣고 끓인다. 후에 닭 가슴살을 넣고 삶은 뒤 다 익으면 건져 한김 식혀 먹기 좋게 손으로 찢는다.
2. 산마는 감자칼로 겹질을 벗긴 뒤, 도톰하게 썬다. 애호박은 반달 모양으로 썬다. 홍고추는 4~5cm 길이로 채 썬다.

3. 닭고기 삶은 물에 칡쌀가루와 국간장을 넣고 고루 섞은 뒤, 주걱으로 저어가며 끓인다.

4. 3이 끓으면 닭고기와 산마, 애호박, 홍고추를 넣고 끓인다. 산마가 다 익으면 들깻가루를 넣고 한소끔 끓인 뒤, 소금으로 간을 한다.





숲에서 자라는 가치

새빨간 오미자처럼

시큼 달콤 쌉싸름한 인생

문경 오미자체험촌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 모든 맛을 품은 오미자는 귀한 약재다.

탱탱하고 동글동글한 열매가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손을 뻗게 될 정도다.

그 작고 빨간 열매에 이끌렸을까. 서울 생활을 지속하던 박종락 대표는 어느 날 고향인 문경에 내려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빨간 오미자가 풍성하게 열리는 고향 땅에서 농민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렇게 조성된 공간이 바로 문경 오미자체험촌이다. 체험촌을 만드는 여정은 결코 달콤하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삶이 풍성해지는 비법을 알아냈다고 했다.

시큼 달콤 쌉싸름한 맛을 거친 그의 노력의 산실, 그 속을 살짝 들여다봤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의 오미자

경상북도 문경의 동로면 생달. 백두대간의 맑은 물과 공기의 정기를 받아 누구나 막힘없이 통하는(達) 삶(生)을 산다는 의미를 지닌 이곳 생달은 바람이 잘 드나드는 곳으로 유명하다. 때문일까. 문경은 국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오미자 재배지역이다.

천성적으로 거친 흙을 좋아하고 높은 기온을 싫어하는 오미자이기에, 문경은 오미자를 재배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으로 손꼽힌다. 그늘지고 바람 길이 잘 열려 있는 황장산의 비탈이 오미자를 재배하기에 최적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 바람을 등에 업고, 지난 2007년 박종락 대표는 황장산 비탈 한편에 오미자체험촌을 만들었다. 많은 사람에게 오미자를 더 많이 소개하고 싶어 문경 고향 땅에 체험촌을 만들었다는 박 대표는 붉게 덩굴진 오미자의 매력을 하나하나 곱씹었다.

“오미자를 그저 단순한 식품으로 아는 분들이 많은데, 실은 한약재예요. 효능이 비범하죠. 게다가 맛도 좋아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최근에는 고객들의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오미자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많이 대중화됐기 때문이죠. 오미자는 식감이나 색감 등에서 인삼을 능가하는 차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알리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비탕을 마련한다면 한국을 대표하는 농산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 천 년 동안 우리 선조들과 세월을 함께한 오미자. 선조들은 오미자의 맛과 효능에 반했고 몸에 좋은 오미자를 곁에 두고 오래오래 음미하고 싶어 다양한 식품으로 만들었다. 오미자를 원액으로 만들어 음식 이곳저곳에 첨가하는 등 많은 요리를 통해 오미자를 즐긴 것이다. 박 대표는 “열매가 머금은 맛만큼이나 매력도 다양한 오미자이기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농민들과 함께하기에 더욱 뜻 깊은

박 대표가 운영하는 문경 오미자체험촌은 자연환경이 수려한 황장산에 자리 잡고 있다. 문경은 전국 오미자 생산량의 45%를 차지하는 곳이다. 박 대표는 “본래 고향이 문경인데 젊은 시절 동안 서울에서 교육사업을 해 왔다”며 “사업을 마친 후 고향에서 꼭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

2007년 이곳에 오미자체험촌을 만들었다. 연간 방문 고객은 약 1~2만 명, 숙박객은 3천 명 정도 된다. 해가 지날수록 방문자가 점점 늘고 있다”며 오미자체험촌을 만든 계기를 이야기했다.

교육사업을 한 경험 덕분일까. 이곳의 프로그램은 꽤나 체계적이고 다양하다. 오미자 청 만들기, 오미자 식초 담그기, 오미자 비누 만들기와 떡메치기, 염색하기 등 사람들에게 평소에는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한다.

“교육사업을 한 적 있기 때문에 체험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자신 있었어요. 저희 체험촌의 다양한 체험 활동은 제가 젊은 날 했던 교육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것들이에요. 다행히 많은 분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프로그램 진행은 지역주민들이 많이 도와주십니다. 오미자도 지역 농민들로부터 공급받고 프로그램도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만큼, 저희 체험촌과 지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서로 함께하기에 더욱 든든한 관계. 그 시너지는 최근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가 좋은 결실을 맺어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에 오미자 납품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농민들로부터 품질 좋은 오미자를 제공받았기에 이를 수 있던 성과”라고 이야기했다.

“문경 오미자체험촌은 품질관리에 매우 엄격합니다.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한다는 의식을 갖는 건 매우 중요해요. 음식은 곧

1. 열매가 머금은 맛만큼이나 매력도 다양해 오미자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 받는다.



2. 문경 오미자체험촌은 품질관리에 매우 엄격하다.

3. 문경 오미자체험촌에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고향의 푸근함을 느낄 수 있다.

1.



6차산업으로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은 오미자

박 대표가 오미자를 2차 가공품으로 만들기 시작한 당시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웰빙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커나가던 시기다. “당시 효소발효, 추출발효 열풍이 불었다”는 박 대표는 “시대의 흐름과 궤를 같이하며 오미자가 더 널리 알려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판로 확보와 시장의 현재에 대해 이야기하던 박 대표는 6차산업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박 대표는 “1차산업을 넘어, 2차 및 3차산업을 한 번에 한 개인이 진행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그렇기에 협동과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지역 내에 있는 중간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6차산업의 가장 큰 핵심은 인적 자원구축과 소통입니다. 결국 각자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히 임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판매든 생산이든 유통이든, 혹은 체험이든 다 같아요. 6차산업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일들은 결국 사람 사이에서 이뤄지는 것이므로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소요소마다 전문가적 소양을 갖춘 사람이 배치된다면 모든 과정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죠.”

고객관리에 힘썼기에 지금의 체험촌을 만들 수 있었다는 박 대표. 그는 “고객관리의 핵심은 손님이 왔을 때 정말 잘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문경 오미자체험촌의 성공 비법으로 ‘사위 마케팅’을 이야기했다. 사위 마케팅, 과연 뭘까.

“하하. 이름 그대로예요. 사위들이 쳐갓집 식구들과 함께 언제든 올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한 거죠. 쳐갓집 식구와 함께 체험촌을 찾을 때, 사위가 칭찬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어요. 전국의 모든 사위가 칭찬 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반응이 꽤 좋았어요.”

지역 농민들과 함께 오미자체험촌을 더욱 탄탄하게 일궈가고 싶다는 박종락 대표. 6차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능성성을 향해 더욱 나아가고 싶다는 그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지 않기보다 친절하게 고민하고 문제를 파헤치며 해답을 얻는 생활을 이어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



체험



맨손 송어잡기



오미자 물에 발 담그기

신뢰니까요. 최고의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끔 박종락 대표는 품질관리를 너무 까다롭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 결국 그 까다로움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좋은 기회들이 생겼잖아요. 농가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품질관리만 엄격하게 해달라는 거죠. 품질만 보장되면 판매는 저희가 열심히 할 자신이 있다고 말해요. 그게 서로 원하는 관계라고 생각하고요.”

오미자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 많이 증가하기 했으나 아직 전 국민의 20~30% 정도만 인지하고 있다는 박 대표는 오미자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을 인삼에 비유했다. 그는 “인삼의 경우 국민의 90% 이상이 인지하고 있지만 오미자는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그런 점에서 앞으로 홍보에 더 힘써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했다.

“인삼처럼, 오미자 역시 한약재이지만 동시에 기호식품이기도 합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최근에는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준비하고 제안해서 오미자 음료 런칭에 성공했죠. 50만 잔 이상 판매되고 있어요. 결국 판로를 만들고 획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판로만 제대로 확보되면 오미자를 더 많이 홍보할 수 있고 지역 농산물이 살아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선순환 구조를 갖는 셈이죠.”



문경 오미자체험촌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여우목로 2371-5
054-553-5244 <http://www.mgomj.co.kr/>

가장 창조적인

여행법

캠핑카

'캠핑과 여행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질문에서 나의 캠핑카 여행은 출발했다.

캠퍼들은 여행보다 캠핑에 무게 중심을 두고 여행자들은 캠핑보다 여행에 치중한다.

흔한 이야기로 낚시꾼은 낚시를, 등산객은 등산을 하지 또 다른 여행자를 찾지 않는다.

그런데 캠핑카는 이동과 숙박을 모두 해결하는 동시에 캠핑까지 즐길 수 있다.

캠핑카야말로 진정한 유목민의 삶을 살 수 있는 창조적인 여행법이다.

나에게 딱 맞는 캠핑카

캠핑카는 '캠핑(Camping)'과 '차(Car)'를 합친 말이다. 쉽게 말해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차량이다. 일반적으로 북미권에서는 RV(Recreational Vehicle) 또는 모터홈(Motorhome)이라 부르고 유럽에선 카라반(Caravan)이라 부른다. RV와 카라반은 다시 구동식과 견인식으로 나누는데 구동식은 우리가 흔히 보는 모터홈 타입으로써 캠핑룸이 결합된 일체형이다. 운전이 편리해 캠핑카 대여 업체에서 쉽게 빌려 탈 수 있다. 단점은 실내공간이 상대적으로 좁은 것과 비싼 가격이다. 견인식은 동력장치가 없는 트레일러로써 별도의 차량이 견인해야 이동할 수 있다. 가격대는 모터홈에 비해 다양하다. 단점은 운전이 미숙할 경우 운행과 주차에 애를 먹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트럭캠퍼는 자동차와 캠핑룸이 분리된 형태로써 평상시에는 일반차량으로 운행하다가 필요에 따라 캠핑룸과 트럭을 합체하면 된다. 트럭을 갖고 있다면 별도의 차량 구입 없이 캠퍼만 구입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적다. 또한, 합체 후에는 운전이 편리하다. 단점은 캠핑룸 공간이 좁다는 것.

글. 임운석(여행작가)





1.



2.

3.

캠핑카는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다양하지만 쉽게 구입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은 아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트레일러 카라반과 트럭캠퍼다. 만약 캠핑카 구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체험해 볼 것을 권한다.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캠핑카를 대여해주는 업체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여행과 캠핑스타일에 적합한 차량을 고르는 것이다. 캠핑카의 장점은 첫째 자동차 한 대에 주방, 침실, 욕실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이 갖춰져 있음, 둘째 숙박과 이동을 동시에 만족시킴, 셋째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여유로운 여행을 들 수 있다.

캠핑카는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수 있는 여행의 로망
캠핑카 여행의 최고 장점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다. 여행하다가 머물고 싶은 곳이 생기면 주차만 하면 그곳이 숙소가 된다. 진정한 유목민의 삶이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있다. 먼저 오토캠핑장은 캠핑을 위해 조성해 놓은 곳이기 때문에 전기, 수도, 화장실 등 모든 것이 최적화된 곳으로써 지정 영역에 주차만 하면 끝이다. 안전한 잠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 초보 캠핑카 여행자들이 이용하기 좋다. 그런데 산림 지역에 조성된 야영장 중에는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곳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고 떠나야 한다.

캠핑카 여행이 익숙해졌다면 주차장이나 공터를 숙박지로 삼아도 괜찮다. 오토캠핑장은 관광명소와 거리가 먼 경우가 대부분인데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성수기를 맞은 오토캠핑장은 난민수용소처럼 번잡스러운 데 반해 주차장은 조용하게 저녁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외에도 사람들이 봄비는 시간을 피해서 호젓하게 여행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에서 화로를 사용하거나 야외에서 취사를 할 경우 민원 발생과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야외 취사는 절대 금물이다. 주의할 것은 지나치게 외진 곳은 안전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때문에 마을과 지나치게 떨어진 한적한 공터나 폐가, 폐공장 등은 피하는 게 좋다. 이런 곳은 우범지대일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유동인구가 지나치게 많은 곳도 적당하지 않다. 저녁에는 한가해서 좋지만 아침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난감해질 수도 있다. 모래사장처럼 바퀴가 쉽게 빠지는 곳도 피해야 한다. 캠핑카는 일반차량에 비해 차체가 무겁다. 필자도 모래사장에 진입했다가 견인차를 호출한 경험이 여러 차례 있다.

이 정도는 알아야 초보 딱지는 뭘 수 있다
캠핑카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는 2종 보통면허 이상이다. 트레일러 카라반의 경우 트레일러 총 중량이 750kg 이상인 경우 트레일러 면허증을

절감되고 편리하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역시 물을 모두 사용한 뒤 빈 차로 오면 연비에 도움이 된다.

여름철 캠핑카의 매력은 시원한 냉장고에 있다. 폭포 찌는 뛰약볕 아래 냉장고에서 시원한 음료수를 꺼내 마시는 기분. 상상만 해도 시원하다. 실제로 오토캠퍼들이 캠핑카를 보고 제일 부러워할 때가 텐트 영역을 구축할 때다. 캠퍼들은 비지땀을 흘리면서 텐트를 설치하는데 캠핑카는 주차만으로 모든 게 끝나니 말이다. 캠핑카에 탑재된 냉장고는 용량이 작기 때문에 효율적인 사용법을 먼저 터득해야 한다. 가장 순쉬운 방법은 먹을 만큼 아니, 조금 부족한 듯 채우는 게 좋다. 그래야 현지 특산물을 구입해서 요리해 먹는 재미가 있다.

캠핑카는 급할 때 참 요긴한데, 화장실이 특히 그렇다. 휴가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볼일을 보려면 최소한 20분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캠핑카는 이때마저 여유롭다. 대부분 캠핑카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

캠핑카를 이용하면 여러모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관광지만 쫓아 다니던 여행이 한결 여유로워지고 텐트 설치 이후에 저녁 늦게까지 고기를 구우며 시간을 보내던 캠핑이 간소화되어 내실 있는 캠핑을 즐길 수 있다. 캠핑과 여행에는 정답이 없다. 캠핑카 역시 나만의 여행 방법을 찾아가는 작은 발걸음일 뿐. ●



1. 캠핑카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때문에 여행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

2. 캠핑카 안에는 주방, 침실, 욕실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3. 성수기를 맞은 오토캠핑장은 무척 번잡스럽다. 그에 반해 캠핑카는 호젓하게 여행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다.

4. 호젓한 분위기를 즐기며, 맛있는 요리도 해먹을 수 있다.



산촌일기

행복한 삶

건강한 삶

<4화> 임업후계자가 되는 길

매거진 숲에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가 한겨울이었는데, 시간이 어느덧 한여름으로 훌쩍 지나갔네요.

이번 호에서는 산촌에서 임업 후계자가 된 일, 목인동이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일,

6차산업 인증을 받은 일을 담았습니다.

글. 이용길

임업후계자 되기, 임업후계자로 살기

산촌에 살면서도 배움에 대한 열망은 끝이 없습니다. 좋은 영양 물질을 주며 나무를 키우면 나무가 쑥쑥 자라는 것처럼, 배움은 저를 무력 무력 자라게 합니다. 산촌에 살면 무슨 재미가 있느냐 물으시겠지만, 이 곳저곳 배움의 문을 두드리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갑니다. 연기군 '농업 기술센터'에서 야생화반·도시농업반을, 충남 '농업기술원'에서 조경 수재배 기술에 대한 강의를 들었지요. 그때 연기군 산림조합(현 세종시 산림조합) 회원으로 활동했어요.

다양한 교육을 들으면서, 2010년에 임업후계자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서 그해 7월 말, 임업후계자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지요. 임업 후계자가 되려면 임업 관련 전문교육을 총 40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저는 충남 농업기술원 및 연기군 농업 기술센터에서 100시간 이상의 임업 관련(야생화) 교육을 받았습니다. 수목 재배 수업을 들으면서 조경수에 대한 지식을 쌓았고, 연암 축산전문대학으로 선진지 견학도 가 보았지요. 또 야생화 및 도시 농부 반도 수료했어요. 대략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으려 다녔어요.

임업후계자가 되려면 약간의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해야 하고, 1년 중 90일 이상을 임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해요. 임업 경영을 통해 얻는 수익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산림조합에도 가입해 '산림조합원'이 되어야 하는 조건도 있어요. 나이 제한이 있어 55세 미만만이 가능합니다. 저는 임업후계자 선정 당시 54세였어요. 운 좋게도, 아슬아슬하게 신청할 자격이 주어졌던 셈이죠.

임업후계자가 된 후, 무엇보다 많은 임업인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세종시 임업인들뿐만 아니라, 임업후계자 전국대회를 통해 많은 임업인을 만났죠. 또 '산림경영모델학교'에 참여하면서 산촌에서 부가가치를 얻으며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참 많이 배웠어요. 산림



산촌일기

풍요로운 산촌에서의 삶은, 도시의 삶보다 더욱 다채롭습니다. 이번호에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전문가가 되고 있는 이용길 씨의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정책, 정부 지원 내용, 새로운 제도 등 임업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이곳에서 많이 습득했죠. 특히 교육이 실무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내용도 알았고 배울 점도 많았죠. 만약 임업후계자가 된다면, 이런 혜택을 받는답니다.

- ① 임업용으로 연간 80m³(일반인 10m³) 입목 임의 별채 허용
- ② 임야 매입, 임도시설, 자연휴양림 조성 시 2억 원 한도 융자
- ③ 기타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공모 가능

저는 혜택을 많이 받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람’에게서 많은 것을 얻었기에 나름 목적은 달성한 것 같습니다.

마을 기업이 되다

임업후계자도 되고 종자기능사 자격도 획득하고… 날로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사실 종자기능사 자격증을 딴 후로, 식물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인지 가끔 ‘원예박사’, ‘나무박사’란 이야기를 듣곤 해요. 머쓱하긴 하지만, 기분 좋은 별명인 것 같아요.

꽃과 나무를 기르면서 목인동을 더욱 아름답게 가꿔습니다. 아름다운 환경과 더불어 아름다운 사람도 곁에 많이 두었죠. 귀농·귀촌한 분들, 현지 농민들까지. 그러다 그분들과 무언가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바로 ‘마을기업’입니다. 생태체험, 꽃차 만들기, 산야초 재배하기, 팜파티 등과 같은 주제를 내세워 ‘생태체험 마을 가꾸기’란 프로젝트로 세종시와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의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6월, 세종시 1기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목인동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된 계기입니다. 마을기업으로 인정받으면서 주변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생태 체험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주변 분들이 찾아와 도움을 주시곤 해요. 그럴 땐 정말 고마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 자릴 빌려, 한 번 더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네요.

1.



[이용길]

20여 년의 도시 생활을 접고 2004년부터 산촌 생활을 시작했다. ‘땅을 사랑하고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를 모토로,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2. 3.
4.



1. 2016년 6월, 목인동이 세종시 1기 마을기업이 되었습니다. ‘생태체험 마을 가꾸기’를 주제로 하여, 생태 체험, 꽃차 만들기, 팜파티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지요.

2. 주말이면 목인동에는 아이들로 가득 합니다. 생태체험을 경험하려고 많이 찾아와 주거든요.

3. 아이들이 자연에서 노는 모습을 보면 저도 절로 기쁜 마음이 듭니다.

4. 목인동의 가장 큰 장점은 자연을 직접 미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흙을 직접 만져보며 아이들은 자연의 소중함을 배워갑니다.

목인동은 2015년 10월, 6차산업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증받았습니다. 조경수·원예식물·산야초가 ‘1차산업’, 꽃차 판매가 ‘2차산업’, 생태체험 교육농장·팜파티·주말 가족 프로그램 등이 ‘3차산업’입니다. 이 모두를 염려 6차산업을 신청했죠. 1차산업은 물론, 3차산업까지 좋게 평가해 주셔서 목인동이 6차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6차산업 인증을 받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촌의 경쟁력은 6차산업에서 찾을 수 있겠구나…’ 아름다운 자연 환경, 숲 속의 맑은 공기 이것이야말로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 아니겠어요?

저는 욕심 많은 일꾼입니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연구원에 가입해 친환경 재배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 매일 농사를 지으면서 날씨, 식물의 생육 상태, 오늘 한 일에 대한 ‘영농 일지’도 쓰고 있어요. 또 우리 목인동 토양 성분 분석도 의뢰했어요. 토양 성분을 분석하면 토양의 산도를 알 수 있고, 의뢰한 토양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식물도 추천받을 수 있답니다. 산촌은 이런 의미에서 참으로, 기회의 땅인 것 같습니다. 매일 같이 저에게 새로움을 주고 매일 같이 저에게 즐거움을 주니까 말이죠.

귀신을 꿈꾸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무얼 해서 돈을 버느냐?’일 겁니다. 제 수입 원천은 크게 세 줄기입니다. 조경수와 꽃차 판매, 생태체험마을 운영, 그리고 민박 운영입니다.

사실 산촌에 사는 데는 그리 많은 돈이 들지 않아요. 땅을 사고 집을 짓는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그 외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자급자족으로 식량을 해결하고, 나무 보일러로 겨울을 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귀신이 귀촌보다 어려운 건 맞습니다. 어떤 일을 해서 수입을 창출해야 할지 고민도 많겠지요. 녹록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의지와 신념입니다. 성공한 귀신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통해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꿈을 생각해보세요. 앞으로의 행복을 위해 도전해 보세요. 목인동이 응원하겠습니다. ☺



여름에 만나요



● 배롱나무

안녕하세요, 배롱나무예요.
뜨거운 여름이 찾아와 저도 찾아왔어요.
불볕더위 아래, 텁스러운 꽃을 주렁주렁 매달았지요.
신록으로 가득한 여름날,
유독 붉은 꽃을 피우니 더욱 반갑지 않으신가요?
혹시, 제가 금방 질까 걱정되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여름에 핀 저는 가을이 올 때까지
꽃을 피운답니다. 무려 100일 동안 말이지요.
여름의 시작과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셈이지요.
자, 가을이 선뜻 다가오기 전 어서 저를 만나러 오세요.
제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럼 어서 펜을 들고 아트테라피를 따라 저를 색칠해보세요.

과명 부처꽃과 학명 *Lagerstroemia indica L.*
분포지 중국이 원산이나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중부 이남에 널리 식재
개화기 7~9월 용도 정원수, 공원수, 약용, 가공재



색연필, 마커, 펜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 개성 있는 나만의 배롱나무를 보여주세요!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2016년 5+6월호 독자 의견

산림청 <MAZINE 숲>은 독자 여러분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갑니다.

<MAZINE 숲>을 읽고 난 후 인상 깊었던 기사에 독자 업서, 이메일(magazinesup@korea.kr)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매 호 여섯분의 독자 의견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대나무 숲은 담양이 가장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울산에도 멋진 대나무숲이 있다니, 정말 새롭습니다. 여름 휴가지로 울산을 가라고, 추천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푸른 아름다움이 있는 울산으로 여행을 가고 싶네요! 좋은 여행 기사 감사합니다.

김혜선_전남 광주



대나무를 접근하는 과학적 해석이 무척 신선했습니다. 대나무에 꽃이 피면 생을 마감한다니, 정말 놀라운 사실이네요. 그런데 아직까지 왜 죽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니. 그 연구 결과가 빨리 나오길 바라봅니다.

백용길_경기도 용인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는 무척 익숙한 설화이죠. 그 설화에 등장하는 나무가 '대나무'라니, 이번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대나무 숲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쳐보아 할 것 같아요.

엄윤주_서울



어머니가 집에서 다육식물을 기르세요. 그래서 집에 무척 다양한 다육식물이 있답니다. 이 기사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육식물도 종류에 따라 기르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네요. 앞으로 더 잘 길러보아야겠어요!

이현정_경북 상주



인천 송도에 이렇게 멋진 공원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야 알았습니다. 꼭 한번 다녀오고 싶네요! 분명 미추홀 공원은 도심 속 낙원일 것입니다!

문영훈_서울



우리나라 자전거 애호가가 1,1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애호가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자전거 캠핑 기사를 읽고 나니 저도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네요. 다음호에도 알찬 캠핑 기사 부탁드립니다.

김재동_경기 시흥



도시숲이 일상의 행복을 더해갑니다!

그녀가 변했습니다.

유행의 변화보다 계절의 변화를 기대하고, 하이힐 대신 운동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변했습니다.

시끌벅적한 술자리보다 피톤치드 한 모금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휘트니스 센터 대신 숲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변했습니다.

스마트폰 대신 숲의 싱그러움과 함께 서로를 바라보고, TV 대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도시숲이 만들어 가는 작은 일상의 건강한 변화,

산림청이 함께합니다.